

창사 26주년 기념식 - 시청자 이익과 공동체 의식 강조



창사 26주년 기념식이 11월 11일(금) 오전 10시 목동 SBS 사옥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회장과 윤석민 SBS 미디어그룹 부회장, 김진원 SBS 사장, 박정훈 SBS 부사장, 이용모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SBS의 비전 체계를 소개하고 26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SBS 26년 테마 영상이 소개돼 임직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윤석민 부회장은 창사 26주년 기념사에서 지금은 턱 어라운드(Turn-Around)해야 할 때라며, 공급자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이익에 집중하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변화들이 우리의 턱 어라운드(Turn-Around)이며 과거의 나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도전정신, 도전의 DNA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창사 26주년 기념 시상식이 진행됐다. 유공상과 우수부서 표창, 파워FM 개국 20주년을 맞아 외부 인사들의 특별공로상 수상이 진행됐다.

끝으로 전 임직원이 사가를 제창하며 창사 26주년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유공상 (총5명)
 - 아나운서팀 배기완 사우

- 시사교양본부 허강일 사우
- 드라마본부 한정환 사우
- 보도본부 정치부 안정식 사우
- 편성실 콘텐츠파트너십팀 · 이상호 사우

- 우수부서 표창 (총4팀)
 - 예능본부 예능운영팀
 - 보도본부 뉴스제작3부
 -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개발팀
 - 라디오센터 라디오 2CP
- 파워FM 개국 20주년 특별공로상 (총3팀)
 - DJ 이숙영
 - DJ 최화정
 - DJ 컬투

윤석민 SBS 미디어그룹 부회장 기념사

도전의 DNA로 생각을 혁신하고 턱 어라운드(Turn-Around)하자!

어느덧 스물여섯입니다. 여러분들과 온종일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 좋은 날이지만 어수선한 국내 정세와 경제 위기, 우리를 둘러싼 여건을 생각하면 그럴 수만은 없어 아쉽습니다.

“도전의 DNA”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던진 화두였습니다. 오늘의 제 화두를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턱 어라운드(Turn-Around)’ 합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턱 어라운드(Turn-Around)’ 해야 할 때입니다. 뱃머리를 돌리려는 배가 있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누구 하나라도 목적지와 방향을 잃거나 주어진 일을 다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표류하겠지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공급자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 것, 시청자를 즐겁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건강한 콘텐츠입니다. ‘시청자의 이익’이 실현된 더 나은 세상에서 SBS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합시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나의 성공은 따라오고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면 나에게는 더 큰 이익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우리의 ‘턱 어라운드(Turn-

Around)’입니다. 과거의 나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의 DNA,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도전입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이것저것 따질 여유도 없습니다. ‘시청자의 이익’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향해 뚝고 불합리한 것들을 바꿔 갑시다.

누군가의 실험적인 의견에 야유가 아닌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남들보다 적은 자원으로 이겼을 때 더 큰 성공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와 직급이 아니라, 일과 직무로만 얘기합시다. 모든 칸막이를 걷어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일을 할 때 약속된 비용과 기한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순풍이 부는 바다에서는 불어오는 바람에만 맡겨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가 맡은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SBS의 뱃머리를 돌려 ‘턱 어라운드 (Turn-Around)’ 합시다.
감사합니다.

1등 채널로 우뚝 선 파워FM, '파워' 제대로 보여줬다!

파워FM 개국 20주년 기념식 및 'The Voice of SBS' 현판 제막식 열려



SBS 파워FM 라디오 개국 20주년 기념식이 1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목동 SBS 사옥 13층 라운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러 임직원들과 라디오 DJ들이 참석해 파워FM 개국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7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 1등 채널로 우뚝 선 파워FM의 개국 20주년 행사여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윤석민 부회장은 축사에서 "2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색깔을 찾아가며 1등 라디오 타이틀을 거머쥔 파워FM 20주년을 축하한다"며, "만만치 않은 경쟁을 물리치고 성취한 이러한 성과는 DJ, 작가, 그리고 PD와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윤 부회장은 "20년 동안 라디오 가족의 '파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무한한 '파워' 를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파워FM 개국 20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SBS 라디오를 빛낸 'The Voice of SBS'의 주인공들과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DJ가 소

개됐다. 10년 단위로 한결같이 SBS 라디오를 지켜 온 대표 목소리들에게 수여되는 'The Voice of SBS'에는 이숙영, 최화정, 김창렬이 선정됐다.

DJ 이숙영과 최화정은 이번에 무려 20주년 'The Voice of SBS'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숙영은 1996년 11월 첫 방송돼 2013년 9월까지 방송된 <이숙영의 파워FM>에 이어 2013년 10월부터 방송된 <이숙영의 러브FM>을 진행하며 무려 20년 동안 SBS와 함께 했고, 최화정 역시 1996년 11월부터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진행하며 20년 동안 SBS와 함께 했다. DJ 이숙영은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열정과 힘이 넘치기 때문에 30주년도 자신 있다"고 소감을 말했고 DJ 최화정 역시 "한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20주년을 맞이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다"고 감동어린 소회를 밝혔다. 이어 DJ 김창렬은 2006년 11월부터 <김창렬의 올드스쿨>을 통해 10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 10주년 'The Voice of SBS'로 선정됐다. 김창렬은 "10년 동안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신 SBS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파워FM 개국 20주년을 맞아 DJ 이숙영, 최화정과 함께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두시탈출 컬투쇼>의 DJ 컬투는 "우리 둘이서 좌지우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국민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두시탈출 컬투쇼>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꾸준히 청취율 1위를 고수하며 라디오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에 파워FM이 독보적 1등 채널이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개국 20주년 기념식에서 DJ 컬투가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로이 제작된 'The Voice of SBS' 현판 제막식, 기념떡 커팅과 다과회도 진행됐다.



월화 · 수목 드라마 'SBS가 평정'

'낭만닥터 김사부' · '푸른 바다의 전설'



SBS드라마가 월화수목을 평정했다. 월화 밤 10시 방송되는 '낭만닥터 김사부' (극본 강은경, 연출 유인식, 박수진)가 단 4회만에 수도권 시청률 14.9%를 기록하며, 대박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 16일 첫방송된 '푸른 바다의 전설' (극본 박지은, 연출 진혁) 역시 수도권 18.0%를 기록, 첫 회부터 2위와 큰 차이를 벌리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제빵왕 김탁구', '가족끼리 왜 이래'의 강은경 작가와 '셀러리맨 초한지',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유인식 감독이 팀워크를 이룬 '낭만닥터 김사부'는 과짜 천재 의사 김사부와 열정적인 두 닥터 강동주와 윤서정의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한석규의 안정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연기와 유연석의 반항적이면서도 애잔한 눈빛 연기, 가장 핫한 배우 서현진의 전문직 의사로의 강렬한 변신이 시청자로부터 절대적 호평을 얻고 있으며, 개연성 있는 탄탄한 내용으로도 극찬을 받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의 박지은 작가와 '닥터 이방인', '주군의 태양'의 진혁 감독이 합작한 '푸른 바다의 전설'은 '어우야담'의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전지현은 바닷속에서는 인어답게 아름답게 헤엄치고, 인간세상에서는 손으로 파스타를 먹고 화려한 액션을 하는 영동함으로 시청자의 폭발적인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지현의 상대역 이민호는 천재 사기꾼 허준재로 분해, 사기꾼 트리오와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이고, 전지현과 좌충우돌 티격태격한다. 특히 과거 조선시대 전지현과 이민호 둘의 특별한 인연이 디테일하게 그려져 극적 리얼리티와 동화성을 함께 획득했다는 평이다.



2016 희망TV SBS “즐거운 기부, 재미있는 기부”

기부도 하고, 재미도 잡고 1석2조 신개념 사회공헌 프로젝트!



SBS의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희망TV SBS>가 창사 주년을 맞아 11월 18일(금), 19일(토) 양일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997년 ‘기아체협 24시’를 시작으로 한 <희망TV SBS>는 전 세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금까지 총 29만 명의 후원자가 모금에 동참했고, 지금까지 무려 2,6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모아지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해 SBS의 위상을 안팎으로 드높였다.

먼저, 이번 2016 <희망TV SBS>에서는 SBS와 뜻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유준상, 김성령, 김주우가 MC로 함께 나선다. 작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 한국에 가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던 유준상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6 <희망TV SBS> MC로 나서 시청자의 관심을 많이 끌 예정이다.

이미 2015년도 <희망TV SBS>에서 배우 류수영, 김주우 아나운서와 MC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김성령은, 드라마 <미세스캅 2>에서 보여주었던 걸크러쉬 매력과는 다른 따뜻

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BS 김주우 아나운서는 2015년도 상하반기 <희망TV SBS>에 이어 다시 한 번 MC로 나선다.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객>을 진행하며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전달하는 SBS 대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김 아나운서는 올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나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해 훈훈함을 더했다.

2016 <희망TV SBS>는 “즐거운 기부, 재미있는 기부”라는 모토 아래, 기존 스튜디오 토크 형식에서 벗어나 확 달라진 모습으로 기획된 색다른 콘텐츠가 더욱 눈길을 끈다. 먼저, ‘희망 노래방 부기부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부가 되는 신개념 기부 릴레이 이벤트로,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이동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하고, 나온 점수에 비례하는 돈을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SBS 8뉴스 앵커인 신동욱, 정미선 앵커를 비롯해 유경미, 최기환, 김주우 아나운서 등 SBS 아나운서들이 대거 참여했고, 양희은, 사이니, 갯세븐, 양세형 등 연예인들과 유명 정치인 등 활동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유쾌한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희망TV SBS>를 빛낸다.

또한 이희재와 문화준이 진행하는 ‘괜찮은 친구들’은 이름 그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개인, 중소기업과 같은 단체)을 소개하고 100인의 방청객과 전문 심사위원단이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희망 씨앗(지원금)을 지원하는 색다른 자선 프로그램이다.

‘희망학교 다큐멘터리’에서는 희망학교 100호가 설립된 기념으로 그동안의 희망학교 설립과정과 의미를 되새겨본다. 특히 박칼린이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해 ‘희망학교 교가’를 제작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갖는다.

‘아프리카 필름링’에서는 윤시윤, 문소리, 류수영, 박미선이 4개 팀으로 나뉘어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각 팀 별로 콘셉트를 정해 촬영을 수행함으로써 색다른 <희망TV SBS>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색다른 기부로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펼치면서 재미까지 동시에 잡은 2016 <희망TV SBS>는 11월 18일(금), 19일(토) 양일간 총 12시간 30분 동안 시청자와 함께 한다.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화, 출격 준비됐다!

11월 20일(일) 밤 9시 15분 첫 방송, ‘라스트 찬스’를 잡아라!



왼쪽부터 정익승 PD, 박진영 심사위원, 양현석 심사위원, 유희열 심사위원, 박성훈 PD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가 11월 20일(일) 드디어 첫 방송된다.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일요일 밤 9시 15분으로 편성시간대를 옮겨 일요일 밤 평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첫 방송을 앞두고 10일(목) 오후 2시에 SBS홀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2011년 첫 방송된 <K팝스타>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즌인 만큼 제작진은 지금

까지와는 확 달라진 방식으로 진정한 K팝스타를 탄생시키겠다는 각오다. 기존 시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아마추어만 가능했던 <K팝스타>의 참가자격을 없앴다는 점이다. 가요계에 데뷔했었던 기성 가수는 물론, 가요 기획사의 연습생, 이전 시즌에 참가했다가 고배를 마신 참가자 모두 <K팝스타>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를 연출하는 박성훈 PD는 “마지막 기회만큼 계급장 떼고 누가 진짜 최고인지를 가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의 우승자는 YG, JYP, 안테나의 공동 프로듀싱을 받으며 데뷔 무대를 함께 준비하게 된다. 국내 굴지의 세 기획사가 드림팀을 이뤄 우승자를 공동 프로듀싱함으로써 역대 최고 클래스의 우승자 데뷔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진행됐던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 제작발표회에서 YG 양현석 심사위원은 “<K팝스타6>는 여느 시즌보다 재밌다. 매 심사마다 너무 즐거웠다”고 말해 <K팝스타6>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JYP 박진영 심사위원은 “색이 달라졌다”며 “저 친구 우리 회사 오디션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탐나는 다른 소속사의 가수와 연습생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안테나 유희열 심사위원은 “보컬 중심의 곡을 쓰는 참가자들, 악기 하나에 목 소리를 담는 참가자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 친구는 바로 데뷔하면 스타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참가자도 있었다”고 말하며 <K팝스타6>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다양한 참가자들을 바탕으로 더욱 더 다양한 색채를 보여줄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는 11월 20일(일) 밤 9시 15분에 첫 방송된다.

<SBS 스페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이달의 PD상



왼쪽부터 이은정 작가, 백시원 PD, 윤소라 작가

라는 문제의식을 고민한 다큐멘터리로, 삼성, 현대, 구글 등의 현직자 및 퇴직자 27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이들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리얼리티 콘트' (권혁수, 하상욱 출연)는 젊은 시청자와 직장인들로부터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평을 받았다.

<SBS 스페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연출: 백시원)가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가 시상하는 '제199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TV 시사·교양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 스페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는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현상을 통해 한국기업의 조직문화와 '일을 왜 해야 하는가'

<TV 동물농장> 이덕건 PD 동물자유연대 감사패 수상



<TV동물농장> 이덕건 PD

<TV 동물농장>의 이덕건 PD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동물자유연대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전달식은 11월 5일(토) 동물자유연대의 '2016 감사의 밤' 행사가 진행된 서울 캠프양재타워에서 있었다. 이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동물복지를 위해 입법 활동과 인식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정치인, 언론인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행사에서 동물자유연대는 <TV 동물농장> 이덕건 PD에게 "언론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동물보호의식 확산과 동물보호정책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화콘텐츠사업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공로상 수상



김혁 미디어비즈니스센터장

현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수상자로 나선 김혁 미디어비즈니스센터장은 "뮤지컬계의 큰 축재 자리에서 이처럼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SBS는 창사 이후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와 후원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뮤지컬 무대 곁에 든든한 조력자로 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BS 문화콘텐츠사업팀이 지난 11월 7일(월)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 5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뮤지컬계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원로 및 관계자를 선정해 시상되는 상이다. SBS는 그간 여러 편의 뮤지컬을 공동주최하며 미디어 파트너로서 뮤지컬계에 공

SBS 기프트숍 온라인몰 오픈



기프트 상품, 분구·사부 유품과 방송인들 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보실까요?
SBS gift shop
★ 새만남재단(주) | 새만남TV | 기프트몰

리뉴얼 후 사우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SBS 기프트숍이 온라인몰을 오픈했다.

SBS 기프트숍에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각종 기프트 상품과 문구, 사무용품, 방송 콘텐츠 상품들을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원하는 장소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SBS 기프트몰은 사내정보시스템(ERP) 로그인 후 메인화면 왼쪽 하단 시스템링크에 있는 기프트몰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파워FM 또 전체 청취율 1위... 21개월 연속



SBS 파워FM이 2016년 MRS(수도권 라디오 청취자 대상 청취율) 4라운드 조사에서 24.7%의 청취율(13-59)로 7라운드 연속 전체 채널 청취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MBC 표준FM의 18.5%보다 6.2%나 앞서서 것으로, 2위와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두시탈출 컬투쇼>는 주중 11.2%, 주말 16.4%의 청취율로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독보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파워FM은 TOP 20위 안에 모두 5개의 프로그램을 포진시키고 있어 당분간 파워FM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브FM은 2015년 4라운드의 3.4%에서 올해 1라운드 4.2%를 기록하더니 이번 4라운드에서 MRS 조사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청취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화정> 20주년 특집 공개방송 성황리 마쳐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최화정의 파워타임>이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공개방송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일(목) 저녁 7시부터 흥대 YES24 무브홀에서 개최된 특집 공개방송에는 DJ 최화정을 비롯해 장미여관, 트와이스, 홍석천, 김정민, 고영배, 레이디제인, 댄디, 지소율, 비투비 등 초호화 게스트들이 모두

출연해 열정 넘치는 콘서트를 선보였다. <최화정의 파워타임>은 지난 1996년 11월 첫 방송된 이래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며 라디오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

러브FM 콘서트 11월 30일 개최



SBS 러브FM이 오는 11월 30일(수) 저녁 7시에 경기도 광명 스피돔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가수 8090 가수들이 모두 출연해 청소년들과 부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러브FM <투맨쇼>의 DJ인 윤희빈과 크레용팝의 초아, 웨이가 1부 MC로 호흡을 맞추고 2부에서는 <드라이빙 클럽>의 DJ 붐과 달사벳의 수빈이 MC로 나선다.

빅스, BAP, 아스트로, 몬스터엑스, 맵시스를 비롯해 걸스데이, 우주소녀, 달사벳, 오마이걸, 크레용팝, 소나무, 라붐, 모모랜드 등 가장 핫한 아이돌들이 총출동하며 매드클

라운, DJ DOC, 세븐, 정동하, 에일리까지 총 18팀의 가수가 출연해 다채로운 콘서트를 꾸민다. 광명 스피돔 LOVE 콘서트 실황은 12월 4일(일) 낮 12시 5분부터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